

# 전남도, 유엔기후주간 기념식...“기후도시 위상 높였다”

여수서 COP 의장국 대표 등 국제사회 주요 인사 대거 참석  
재생에너지·블루카본정책 소개해 탄소중립 실현 거점 강조

전남도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고위급 기념식을 계기로 국제 기후협력의 접점을 넓혔다. 전남도는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고위급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누라 합라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 정현규 여수시장 권한대행, 브라질·튀르키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장국 대표, 당사국 대표 등 국제사회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기후도시이자 대한민국 남해안 기후위기 선도도시임을 입증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기후행동의 선도적 주체로서, 재생에너지를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충 등 탄소중립 가속화 구상을 발표했다. 누라 합라지 부사무총장은 “기후대응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행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이행포럼에서는 투자 등 거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기후행동의 실질적 이행 방안, 기후 자원조달 가속화를 위한 장애요인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청년기후행동대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식 행사에서 UNFCCC 부사무총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표단(PYCC)은 기후행동에서의 AI와 혁신을 주제로 미래세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황기연 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남의 실천적 기후정책을 소개하면서 “전남도 여수시는 산업도시의 성장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의 선봉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전환하고, 깃발과 해조류를 블루카본 자산으로 육성하면서, 2050년

까지 5억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기념식에 앞서 황기연 부지사, 기후에너지 환경부 차관, 누라 합라지 부사무총장, 여수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기후주간 기념 상징물 제작식이 진행됐다. 태양광 집열판을 활용한 친환경 상징물은 지속가능 미래와 에너지 대전환을 향한 의지를 담아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전남도새마을회, 시도 종합평가 ‘전국 1위’ 최우수상

새마을의 날 기념식서 선정  
조직관리 등 운영 전반 성과

전남도새마을회는 최근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새마을운동 56주년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2025년도 시도 종합평가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도 종합평가는 매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전국 시도새마을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실적을 비롯해 조직관리, 재정지립, 중점운동, 홍보 및 교육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병행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도새마을회는 전 부문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 자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새마을회는 양재원 회장을 중심으로 박정덕 협의회장, 최경우 부회회장, 이인규 직장회장, 백영자 문교회장, 임대



전남도새마을회는 최근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새마을운동 56주년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2025년도 시도 종합평가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 청년회장과 함께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꾸준한 봉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전국 시도협의회 부문에서는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가 우수상을, 시도부녀회 부문에서는 전남도새마을부녀회가 최우수상을, 시도직장협의회 부문에서는 직장공감새마을운동전남도협의

회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남도새마을회 조직 전반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또 전국 시군구 부문에서는 무안군새마을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여수시와 순천시새마을회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청년연대 부문에서는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 회장은 “이번 수상은 도내 새마을지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조선이공대 제13대 총장에 이응재 교수 임명 구성원 직접 투표 후 이사회 심의...6월부터 4년 임기

조선이공대학교 제13대 총장에 이응재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조선이공대는 26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제13대 총장으로 이응재 교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장 선출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직선제 방식과 법인이사회회의 승인 절차를 결합해 진행됐다.



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조선이공대 생명공학공과 교수로 약 20년간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에 힘써왔다. 교무입학처장, 학생취업처장, 지방대학혁신화사업단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학과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이응재 교수는 “중책을 맡겨준 법인이사회와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구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대학이 지역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대학

이응재 총장은 “학생 중심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연계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



나주시가 ‘3색 힐링스테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하룻밤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나주, 체류형 관광 ‘3색 힐링스테이’ 호응

비움·채움·고요 테마

나주시가 전통과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 콘텐츠 ‘3색(색) 힐링스테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3색 힐링스테이’는 비움, 채움, 고요를 주제로 사찰, 향교, 수도회 등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비움’의 공간인 불화사에서는 타종 체험과 비로야차 다례 체험, 새벽예불, 걷기 명상 등을 통해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

는 시간을 제공한다. ‘채움’의 공간인 나주향교와 읍성 일대에서는 전통문화 체험이 중심이 된다. 나주 정미소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읍성을 둘러보는 인력거 투어와 향교 서재에서의 숙박 체험을 통해 유교문화의 정취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

‘고요’의 공간인 글라셋연구소회에서는 피정과 산책, 맥주 홈브로잉 체험 등을 통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3색 힐링스테이’는 나주의 전통과 자연, 문화적 자원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여행자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나주=조현천 기자

## 보성, 곡우 맞아 햇차 수확 본격화

‘보성차 제2 부흥기’ 시동...말차 중심 산업 전환

최근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를 맞아 녹차 주산지인 보성의 차밭에서 주민들이 햇차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곡우는 봄비가 내려 곡식이 자라는 시기로, 전통적으로 어린 차잎을 수확하는 최적기로 꼽힌다. 특히 이 시기에 채엽한 차잎은 향과 맛이 뛰어나 최고급 녹차인 ‘우전차’의 원료로 사용된다.

보성군은 전국 최대 차 주산지로, 해양성과 대륙성 기후가 교차하는 자연경과 풍부한 강수량, 배수성이 뛰어난 토양을 바탕으로 고품질 차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성차는 573여 농가가 재배하며, 재배면적은 약 797ha 규모로, 연간 약 5000~6000t의 차잎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차잎은 가공을 거쳐 녹차·말차·차 음료 원료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외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녹차 중심의 산업을 넘어 ‘보성말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말차는 분말 형태로 가공돼 음료, 제과제빵,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결합하며 부가가치를 크게 높이는 핵심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mth6@



최근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를 맞아 녹차 주산지인 보성의 차밭에서 주민들이 햇차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좌) 전남문화재단은 최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서포터즈 ‘수요천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전남문화재단

##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알릴 ‘수요천사’ 발대식 전남문화재단, 서포터즈 출범 활동 공식화

(좌)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최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서포터즈 ‘수요천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서포터즈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초수행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와 참여자 네트워킹,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 소개 시간에는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의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 서포터즈의 역할 및 활동 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위촉장 수여를 통해 서포터즈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공식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는 서포터즈와 기초수행단체 간 상호 인사를 나누고 활동 지역 및 콘텐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협업 기반을 다졌다. 특히 현장 중심의 활동이 중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서포터즈 ‘수요천사’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남도 전역에서 진행될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장 취재, 콘텐츠 제작, SNS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서포터즈의 다양한 시선과 콘텐츠가 지역 문화사업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도민과 문화사업 간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